

진정으로 위대한 교사는 누구인가?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이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개역, 요한복음 3:22-30]

선 생님도 제자를 잘 만나야 빛을 봅니다. 아이들을 잘못 만나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빛이 잘 안나요. 그런데 어쩌다가 좋은 제자를 만나면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은 절대로 아무나 가르치면 안됩니다. 한번 찍히면 그 다음 자리를 못 구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때는 공부 잘 하는 아이만 골라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도 편하고 소문도 잘 나서 돈을 벌기 쉽습니다.

반면에 아이들이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도 대단한 복입니다. 이름 좀 날리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내세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제자를 잘 만나야 하지만 학생이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께 이런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저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1박을 하나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잘 하더라고요. 아이들보다 선생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일을 맡아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끝까지 잘 감당하길 바라면서 우리가 누구 본을 보면 좋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 본을 보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좋긴한데 목표가 너무 높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친 방법은 교육학적으로도 대단히 탁월합니다. 너무나 뛰어난 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들을 잘 배우면 틀림없이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위대한 교사입니다. 바울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 다시 봐야 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지혜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세례 요한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거의 희망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던, 도무지 희망이 없던 때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야가 당신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야와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말이죠. 사람들의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의 답변이 뭐니까?

1장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난 메시야가 아니라 메시야가 오는 길을 예비하라고 말했던 광야의 소리, 난 바로 그 소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야가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고 질문했을 때 1장 26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배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3장 22절 말씀에,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많은 사람이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그 가까운 곳에 오셔서 세례를

배풀기 시작했습니다. 도의적으로 '그러면 안되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있는데 옆에 똑같은 가게를 하나 더 내면 괜찮습니까? 더군다나 함께 장사하며 기술을 가르쳐준 후배가 다른 데도 아니고 옆에 와서 전을 벌리면 이건 더더욱 곤란하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요한에게 세례 받은 예수님이 얼마 후에 요한이 세례를 배풀고 있는 그 근처에 와서 세례를 배풀었습니다. 이걸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참 곤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의적으로, 상식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요한도 이 일이 오래 계속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알 리가 없는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찾아와서 불만을 털어 놓습니다.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가게 오던 손님들이 옆집으로 다 갑니다. 전에 선생님에게 와서 장사 기술 배워간 그 분입니다." 그런 애깁니다. 손님들이 다 옆집으로 가면 우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은 폐업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 애깁니다. 만약에 장사하는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큰일이 나겠지요.

요한의 제자들이 다른 유대인들과 토론이 붙었습니다. 주제가 '결례에 대하여'라고 하는데 세례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 말 끝에 자기 선생님에게 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저리 다 갑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미루어 짐작컨대 어떤 유대인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야, 세례가 다 같은 세례냐? 너희 선생님보다 저 옆에 오신 예수님의 세례가 훨씬 더 효력이 있는 모양이다. 너희 선생님 이제 한물갔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선생님에게 와서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요한의 답변이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우리 지금 폐업해야 될 상황입니다. 선생님,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 어른께서 "당연히 그 집은 잘 돼야 하고 우리는 문 닫아야 돼." 이런 애깁니다.

권양선 집사님이 응급 구호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전화 오면 언제든지 뛰어나가야 한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배시간에 전화 오면 눈 좀 찌푸리더라도 권양선 집사님 전화만은 그냥 두십시오. 응급 환자의 전화랍니다.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이것도 사업인데 잘 되길 빌어야 합니까? 빨리 망하길 빌어야 합니까?"

가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구나 단체 중에는 번창하기보다는 빨리 쇠퇴해서 사라져버려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패방지 위원회, 이걸 할 일이 없어서 빨리 문 닫을수록 좋은 겁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단 이런 기구는 번창해야 되는지 빨리 문 닫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때에 따라서는 빨리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기구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게는 요한이 생각하기에 빨리 문 닫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 쓸모없는 직업이나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뭐 있어요? 경찰서, 교도소, 병원, 장의사 이거 다 소용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나는 빨리 사라져 없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 하고는 문 닫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메시야 아니냐고 말할 때에 "아니요, 나는 빨리 사라져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하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길 닦느라고 보내신 전령에 불과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닙니다. 난 그저 신랑의 옆에서 그 기쁨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신랑의 친구일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말 아니냐고 그러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아침이나 칭송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높으신 분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는 꺾발을 되게 부립니다. 가령 어떤 어른이 시찰을 왔다 칩시다. 이리저리 돌아보고 가면서 “운영 잘 하고, 깨끗하고 멋지다.” 이러는데 기사가 “에이 앞에서만 보니까 그렇지 제가 뒤쪽에 가보니까 엉망이던데요.” 이 말 한마디 툭 던지면 앞에서 열심히 수고한 것이 하루 아침에 펍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기사라고 대접을 제대로 안 하면 무슨 트집을 잡아 꼬는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사람 모시고 있으면서 ‘난, 그저 기사일 뿐이야’ 이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행세하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청와대 청소부는 뭐라고 그러니까? 오래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청소부가 명함을 가지고 다녀요. 청와대 청소부라고 하고 다닐까요? 청와대 무슨 과장이라고 하던데 알고 보니까 청소부래요. 그래도 앞에 청와대 붙었다고 얼마나 힘쓰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난, 그저 청소부일 뿐입니다’ 이게 잘 안되는가 봐요.

하물며 자기를 향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메시야가 아닙니까?’ 하고 칭송하고 있는데 ‘난 아니요, 난 사라져야 할 사람일 뿐입니다’라고 자신을 낮추고 사라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했던 말 있잖아요? 말 타면 종 세우고 싶다 그러죠. 걸어다니던 사람이 말 타면 종 세우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이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내가 뭐 하나 맡아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하고 있구나 싶는데 그 자리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비켜주라 그러면 쉽습니까? 흔하지 않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기꺼이 물려주고 비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부인 낸시 여사가 백악관에서 8년을 보내고 나갈 때 기사가 짓궂게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그 대답을 듣고 놀랐습니다. 솔직함에 놀랐는지 어디에 놀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8년 임기가 끝나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번연히 알고 있었음에도 막상 나갈 때가 되어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답니다.

그런데 제 발로 그 자리를 놔두고 나갈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뛰어와서 “큰일 났습니다.” 할 때 “큰일은 무슨 큰일이나? 당연한 일이지. 그리고 우리는 깨끗이 털고 사라져야 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역할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답이 쉬울지 모르지만 철학자는 이 제목 하나 가지고 평생을 연구합니다. 그래도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철학의 중요한 문제가 ‘나는 누구인가?’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얼마만큼 값이 나가는 존재인가? 답을 잘 못 찾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찾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데서 답을 찾아가면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내가 밖에 나가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비난도 당하고 무능하고 못난 것 같은데 내가 이래서 살겠나? 싶을 때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며 내가 누구냐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더 정확한 답변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기 비하, ‘내가 살아서 뭐하냐?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 땅에서 힘껏 살아갈 수 있는 해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뛰어왔지만 요한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제자 중에서 두 명을 예수님에게 보내버립니다. 그 때 예수님에게로 가서 다른 제자들을 불러 모았던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이 몇 명 나올까요? 세례 요한과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럴 때 요한은 베드로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은 요한복음에 안 나오니까?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나오는데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서 요한이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제자가'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안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데리고 있다가 보낸 제자가 안드레고 같이 있던 제자가 요한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요한은 가장 소중한 제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훌륭해지려면 제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예수님에게로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도 업적을 잘 내려면 밑에 제자를 잘 두어야 합니다. 여러 학생 중에 제일 힘 있는 교수가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제자를 골라 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제자를 기꺼이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무슨 증인이 되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은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라는 겁니다. 뭐 이런 일에 열심을 낼까요? 자기가 흥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라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세례 요한을 닮은 분들이 우리 교단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자기들이 남긴 위대한 업적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먼 후배들이 찾아가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싶어 하면 도대체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선배들 중에 옛날 어른들의 얘기를 잘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비법을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그냥 "목사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얘기 안 해요. 이 분은 찾아가서 얘기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조금 알아서 아는 체 하고 주섬주섬 먼저 이야기를 하다보면 저절로 술술 풀려 나온답니다.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비석조차 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걸 몹시도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하고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는 구절이 보입니다. 요한의 목표가 빨리 옥에 갇히고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 요한의 사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의 죽음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했는데 그 요한이 작은 계집아이의 춤값에 목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냈고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 들었던 요한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야 했느냐 말입니다.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난했는데 비난을 받는 헤롯도 요한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고 함부로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그 작은 계집아이 춤값에 목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참 너무나 어이없게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요한은 자기의 이 비참한 죽음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얼마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당연한 죽음이지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마울 데 없는 죽음입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온 인류의 죽음은 맞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되신 그 분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지요 그러나 이걸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서야 할 그 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사명을 잘 감당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알았고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알았던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도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능하거나 힘없는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오죽하면 그를 향해서 메시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걸 인기라고 말해야 될는지 어떨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사라면 아이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믿고 따르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작은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웃들에게 '저 사람 믿을 만하다, 따를 만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나를 믿고 따라오는 그 아이들이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심어줄 것 아닙니까? 아이들조차 '우리 선생님은 실력도 없고 믿을 수 없어!' 이러면 어떻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겠느냐 말이예요.

교사는 아이들 눈에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어떻게든 따르고 싶어 하고 달라붙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 뒤에서 쭈덕쭈덕거리는 경우라면 교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고등학생쯤 되면 맛있는 것 사 주는 것만으로 아이들을 끌어당기기엔 불가능합니다. 그때쯤 되면 선생님의 가르침에 수긍하지 않으면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적으로도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초등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서 끌어가는 좀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훌륭한 말씀보다는 선생님들의 사랑과 열심과 관심이 더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유능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참으로 영리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노력하는지 어떤지 금방 압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한 시간 가르치기 위해서 8시간 준비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교육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따라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끔 "강도사님, 설교 금방 안 나오니까?" 설교 한편이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설교 한편이 만들어지는가? 예전에는 아무 얘기 없다가 급하게 와서 설교 부탁을 하면 제가 혼을 냈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인 줄 아느냐?"고 고래고래 고향을 지르고 그랬는데요. 제가 신학교 간 다음에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나한테 급하게 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도 마찬가지 아니냐? 똑같이 일을 급하게 시작하면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겠냐? 그러면 죽을 쏠 때 쏘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급하게 연락 올 때를 대비해서 스펠어로 하나 더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혹시 급하게 부탁을 해도 군소리를 잘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강도사님에게 이야기하면 금방 나오더라?' 아니요, 의도적으로 따로 준비를 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애용하지는 마세요.

제가 별로 재주는 없지만 관심은 팔방미인입니다. 그런데 취미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버렸습니다. 오로지 성경책 펴 놓고 공부하는 것만 남겨 놓았습니다. 한 시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시간 준비한다는 것이 교사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유능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능한 교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목사님 안 계실 때 새벽기도는 누가 인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았습니

다. 가끔 집사님들이 새벽기도 설교 맡으면 며칠간 잠도 잘 안 오고 밥도 잘 안 먹힌다면서요? 그럼요, 그런 각오로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 새벽에 일찍 와서 여기서 예행연습 하고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매사에 그렇게 노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힘이 좀 든다고 함부로 집어치우고 튀어 나와서는 곤란합니다.

게으르고 무능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갑자기 유능하고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신약성경을 얼마나 많이 기록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비록 길을 잘못 가고 있었지만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전파에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모세는 왕자로 자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나중에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되지요. 기독교의 틀을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요? 포로로 잡혀가서 적국에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등고시 패스한 사람 아닙니까?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렇게 공부를 잘 하기가 쉽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위대한 일을 남긴 것을 보면 노력해야 합니다.

위대한 다윗 왕을 생각해 보세요. 시편 23편 참 좋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저는 이 구절을 보는 순간에 다윗은 목동으로 지낼 때 절대 농땡이를 피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양이야 배가 고프든지 말든지 어느 놈이 물어가든지 말든지 이리면서 목동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그 입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이 나오겠느냐 말입니다. 정말 열심히 충성한 삶이 있었기에 그 아름다운 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도 오해가 좀 있더라구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전에는 멍청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기 전에 솔로몬이 한 일을 유심히 보세요. 아주 지혜롭게 했습니다. 지혜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 만큼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으르고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안수 한번 하시면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어렵도 없는 소리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밀어주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지혜롭게 노력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혹시 직장에서나 아니면 새 일을 시작하였다면 함부로 걸어치우지 말고 그 일이 성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지혜를 동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참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한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자신은 깨끗이 사라지는 충성스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이 생각하기에 진정으로 유능한 교사, 생명을 주는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요한의 이 모습을 잘 간직하셔서 그렇게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얘기 두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교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보다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는 인식이 더 강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다가 옆에 바짝 말라버린 새끼줄 같은 게 지나가는 걸 보았는데 저게 뭐가 싶어서 따라갔더니 한참 가더니 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담 위에 달덩이 같이 흰한 호박이 있는데 그게 호박줄기였습니다. 호박줄기 참 굵잖아요? 그런데 호박이 완전히 여물 때쯤 되면 바짝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영 볼품이 없어요.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보잘 것 없는 줄기를 따라서 저 아름다운 호박이 열렸더라는 말 아니냐? 그래서 그 집 주인 할머니에게 물어 보았죠. "호박이 다 익은 것 같은데 왜 저 말라 비틀어진 줄기를 안 따니까?" 다 딸 때까지 그냥 둔대요. 그 말이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 여름 뜨거운 날, 앞에서 온갖 영양을 다 만들어서 줄기차게 보내고 그

호박이 아름답게 익어갈 때에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는 저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의 모습이 겠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호박이 다 익었는데도 시퍼런 줄기가 딱 버티고 있으면 꼴불견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날 때 나는 깨끗이 사라져 가는 것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사명이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기회가 되면 이 얘기를 잘 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잘 전달 되고 난 다음에도 내가 튼튼하게 이 아이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 조심을 많이 합니다.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가리켜 '나는 목자가 아니라 목자를 따라다니는 개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가 칩니다. 목자가 이리 저리 풀고 있는데 양이 한 마리 뛰쳐나가면 나는 옆으로 빠져나가는 양을 제대로 몰아넣기 위해 쫓아가는 개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저녁에 쉼 때에 목자 옆에 앉아 있으면 목자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 수고했지'라고 말할 때 참으로 만족하는 그 개가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맞는 말이라고 감격을 한 겁니다.

양을 누가 칩니까? 내가 쳐요? 예수님께서 칩십니다. 다 예수님의 양떼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글을 보고 정말 맞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이 노리는 것은 양의 숫자가 아닙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난 다음에 그 목자가 수고했다고 말하면 그 목자 옆에 앉아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그 개의 행복이 바로 목자인 자신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참 좋더라고요. 단순하게 목사의 행복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교회 아이들을 자신의 딸마니로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 열심히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라요. 때가 되면 놔줘야 하는데 내가 가르친 아이들의 대장이 되어서 나 아니고는 이 아이들을 통솔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잘 보내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딸마니로 삼고 내가 대장이 되어서 다닐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심어준 다음에 나는 깨끗이 물러나야 하는 것이 유능한 교사입니다.

아예 내 곁에는 아이들이 안 와! 이걸 곤란합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아이는 목동이라고 합니다. 양을 치는 사람은 목자라고 합니다. 그럼 양치는 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이름도 없잖아요 목견이라고 할까요? 이름도 없지만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자꾸 뛰어다니면서 옆으로 도망가는 놈 밀어넣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있어야지요. 그 정도 일도 하지 않고 목자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나요?

우리는 흔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로 보내는 일도 하지 않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이걸 곤란합니다. 내가 발하는 빛을 보고 많은 아이들이 나에게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다음에 이름도 없어지고 빛도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지 마세요. 한 때는 이름도 나고 빛도 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찾아올 만큼 빛이 나야 합니다. 아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놓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위대한 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스승을 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애 최고의 스승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위대한 스승에게로 우리의 아이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분의 영광을 높이 높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